**과제 명:** 계획 공유 스케줄러 어플

**아이디어 선정**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 **마스크 가격비교 앱**, **유동 인구 지도 앱**, **계획 공유 앱** 세 가지가 나왔다.

**마스크 가격비교 앱**은 근처 시설(편의점이나 의료시설)의 마스크 가격을 알려주어 어느 곳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한지 쉽게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하지만 편의점 등 각 시설의 마스크 가격을 나타내는 참고자료를 얻기가 어려워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유동인구 지도 앱**은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람들이 어느 지하철에서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이동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주 아이디어로 채택한 계획 공유 스케줄러 앱**

예전에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라는 책을 읽고 기획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목표를 정해서 매일 한번씩 반복하는 것이다. 크고 어려운 목표는 실패하기 쉽다. 차근차근 목표를 키워가며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 성과를 이루는 방법이다. 책에선 이를 “Small Step”이라고 지칭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기능을 구현하고 목표 설정, 알림 등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기능을 더 추가한다. “자신의 계획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동기부여와 계획 지속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채팅방을 생성해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나누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타인이 어느 목표를 설정했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서로 볼 수 있다. 유저는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여 동기부여, 위기의식을 가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이 성취한 내용을 표현하며 더 큰 성취감을 얻는다.

하루목표 기능도 추가한다.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정해두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루목표 설정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정하고 실행했는지 점검한다. 위의 Small Step과 다른 점은 1.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2. 작고 하기 쉬운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정한다. 라는 점이다.

채팅방은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채팅방에 들어가는 건 필수적이지 않다. 이를 원치 않다면 이용하지 않고 계획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 채팅과 계획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이며 연동이 가능하다.

=========여기 까지가 적당해 보임===========

~~(자신의 계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며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얻는 어플)~~

채팅방 설정에 경우 다음과 같다.

1. 채팅방 생성 – 채팅방을 만든 사람은 인원수, 주제, 방 이름과 설명을 정할 수 있다.
   1. 인원수: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2. 주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편하게 정렬할 수 있도록, 테마에 맞춰 함께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다.
2. 타인이 올리거나 달성한 목표에 “좋아요” 등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
3. 채팅은 직접 타이핑할 수 없으며. 매크로 형태의 정해진 말만 할 수 있다. “멋져요”, “잘하셨어요”, “아쉽네요” 정도의 의사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4. 최대 목표 개수는 5개로 설정한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목표는 실행하기 어려우며, 과도하게 채팅창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예정